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9일 목요일 음 12월 7일 (14물)

기상정보

흐림



제주는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C, 낮 최고기온은 8-10°C로 전망된다.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빙판길을 유의해야겠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 for Jeju.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능지수 경고

Table with air quality index (PM10, PM2.5) and visibility.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4/9°C, 모레 구름많음 4/10°C

월드뉴스

中 위드 코로나에 들뜬 해외거주 중국인

일본·인도 중국발 검역 강화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을 풀기 시작하면서 3년 가까이 가족, 친지들과 생이별해왔던 해외거주 중국인들이 기쁨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체크인을 위해 기다리는 중국인 가족. 연합뉴스

중국의 여행 제한 해제 소식에 전 세계는 들썩이고 있다. 수년간 해외로 떠나지 못한 중국 내국인들은 앞다퉈 해외 여행 검색에 나섰다. 일본과 인도 등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하는 등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행과 가족·친지 재회에 목마른 많은 중국인이 현재 주로 느끼는 감정은 '안도감'이라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목요일론



류성필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담당·공학박사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체질개선, 면역력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대표적인 해양치유자원으로는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염지하수, 해사,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으로 치유에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이 해양치유자원이다.

최근 들어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해양의료산업, 해양바이오산업, 해양관광산업 및 해양인력양성산업 등 융복합 해양치유(marine therapy)산업에 많은 자치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의 메카! 제주를 바란다

국내에서도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해양치유센터는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전남 완도 4곳에 건립 중이며 2023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4개 해양치유센터의 체험인원은 연간 100만명, 고용효과 1900명, 생산유발효과 약 2700억원으로 예상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웰니스 관광을 산업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중이다.

국외의 해양치유산업 추진 현황을 보면 프랑스는 200년 전부터 세계 최초로 천연해수를 이용한 해양요법인 '탈라소테라피'를 대중 치료법으로 이용하고 있고 프랑스 전역에 83개소의 해양요법센터가 운

영 중이다. 독일은 1919년 도입된 치유법 이후 사회보장과 복지서비스로 '치유'를 활용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50개의 쿠어오르트는 치유휴양지를 운영 중이며 관광과 연계한 웰스 투어리즘을 4차 산업시대 유망한 전략산업으로 육성·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사해의 브랜드화를 통해 해니(머드), 소금 등을 가공·수출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오키나와 현에서 프랑스 해양요법시설을 도입해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해양치유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독일이나 일본 등에 비해서는 초기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 해양

치유산업의 시장 잠재성은 높게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제주인 경우 아열대성 기후와 한라산의 영향으로 다양한 식생과 화산암으로부터 생성된 염지하수(용암해수), 검은모래 등 제주만의 해양치유자원을 가지고 있다.

제주만의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치유센터의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육성·가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제주가 해양치유산업의 메카로 가기 위해서는 해양치유, 산림치유, 농업치유, 웰니스관광, 항노화 등을 포함한 '치유산업박람회'를 우선적으로 개최해 제주만의 강점을 국내외에 알리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열린마당

2023년 한·중 교류 새로운 미래 소망하며



오은숙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2022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막혀있던 중국의 입국장벽이 새해부터 폐지한다는 소식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올해 가장 큰 선물인 것 같다.

한·중 수교 이후 한·중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지방 차원의 교류는 단연 서귀포시가 이끌어 왔다고 자부한다.

서귀포와 중국의 인연은 2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떠난 서북 일행이 도달한 곳이 바로 서귀포였다. 서귀포 앞바다를 지나던 서북 일행은 정방포도

고령 운전자 위한 온라인 교통 안전교육



김은영 제주시 정보화지원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제주지역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인 11만 2000명이다. 통계청은 제주의 고령 인구 비중이 2045년 35.2%, 2050년에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38.3%가 된다고 예상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2020년 기준 548건이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운전자의 신체 능력 저하로 고령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주

기적인 고령 운전자의 신체 기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필수이다.

고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교통안전교육과 치매 선별검사를 받고 적성검사를 통과해야만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교육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은 도로교통공단까지 직접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고령 운전자를 위해 제주시청 정보화 교육장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문 강사가 일대일로 온라인 교육을 도와주며 고령자 운전의 주의 사항과 안전한 교통 생활 등의 내용을 교육받게 된다. 이러한 교통안전교육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ju Quality Standard (감귤묘목) featuring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Jeju Quality Standard (감귤묘목) listing citrus varieties and their cultivation periods.

Advertisement for Jeju Quality Standard (감귤묘목) focusing on high-quality domestic citrus products.

Advertisement for Jeju Quality Standard (감귤묘목) listing various citrus varieties and their cultivation periods.